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숲가꾸기는 곧 국토사랑운동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은 우리 국토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국민적 역량을 숲 가꾸기로 한데 모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숲을 사랑하는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자연조화와 생명존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혜란 사무처장 ■ 일자 : 7월 11일 ■ 장소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실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의 설립 취지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숲 가꾸기 운동은 흩어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시련과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운동이자 실천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국민적 역량을 숲 가꾸기로 결집하여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며, 국토보전과 자원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은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잉태합니다. 선조들이 반만년 동안 일구어 가꾼 금수강산은 자연조화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창조시켰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한 생명의 문화는 금수강산이 사라진 오늘날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숲을 가꾸는 일은 생명의 문화가 꽃피는 금수강산을 복원하는 일이며, 오늘의 세대가 도덕적·정신적 일체감으로 내일의 세대를 위해 펼칠 수 있는 국토사랑운동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숲을 가꿈으로써 우리 국토와 지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국민적 역량을 숲 가꾸기로 결집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숲을 사랑하는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자연조화와 생명존중의 문화창달을 하자는 취지로 1998년 3월 18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 하시고 있는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선 숲을 느끼고 숲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사업으로 '숲 가꾸기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숲 속에서 가지치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등 직접 숲을 가꾸어 보는 체험을 해 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숲의 소중함, 숲이 갖고 있는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명의 숲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숲 교실'은 어린이들이 숲 속에서 놀이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숲의 생태적 관리를 통한 풍요로운 산촌 만들기과 산촌 주민과 도시민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숲 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생활하



생명의 숲 교실

면서 생태적 감수성, 자연의 소중함 등을 직접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숲 가꾸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은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지역 공동체의식 제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의식 배양이라는 다양한 의의와 효과가 있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계몽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숲을 찾아 널리 알리고 보전하자는 목적에서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명의 숲 음악회, 숲과 문화의 만남 등 활발한 문화사업과 교육용 홍보책자 발간 보급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책연구사업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사업으로는 정부 산림정책의 의견 제시, 정부 숲 가꾸기 사업 감시 및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숲 가꾸기 시범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시범림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의 일환으로 98년 시작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숲이 갖고 있는 경제적,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홍보, 교육하면서 전국의 숲 가꾸기 사업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은 숲을 찾다니면서도 숲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이러한 국민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신다면.

저희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하여 숲 가꾸기의 필요성, 숲의 소중함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그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흔히 나무는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커서 숲이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무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듯이 똑같이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과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커다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활동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계획돼 있는지요.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숲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시민참여사업과 학교 숲 가꾸기 운동 등은 지속적으로 계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명의 숲 교실' 일일 현장체험

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시범림 사업을 통한 숲 가꾸기 운동은 기술적인 부분 지도 및 숲 가꾸기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방향제시, 숲 가꾸기 산물 이용방안 연구 등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산림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흔히 21세기를 시민참여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를 포함한 모든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환경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논의, 심의 결정을 할 때 꼭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랍니다.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